

12강 어휘 적절성 파악

Gateway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상황 윤리

Situational ethics is an ethical theor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or an act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Supporters of this theory willingly permit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s.

In the absence of a universal standard or law, what matters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so, the end justifies the means.

Possibly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can help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In a pickup game of basketball played among friends,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s or acknowledge knocking the ball out-of-bounds.

Caring about one's friends and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leads to these actions.

But,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most athletes will not admit to the same fouls or violations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Situational ethics has been extended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to mean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on the field or court as possible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s.

‘상황 윤리’는 어떤 상황이나 행위가 윤리적인지를 판단할 때 그것의 맥락을 고려하는 윤리 이론이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기꺼이 절대적 도덕 기준을 버리는 것을 허용한다.

보편적인 기준이나 법이 부재할 때 중요한 것은 결과나 결과의 영향이며, 따라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아마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현실 상황이 상황 윤리의 적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들끼리 하는 즉석 농구 경기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파울을 스스로 선언하거나 공을 경기장 밖으로 처낸(아웃시킴) 것을 인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아마도 그 그룹과 함께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식 경기가 심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선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는 것보다 승리라는 최종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상황 윤리는 많은 선수와 코치에 의해, 경쟁적 이점을 얻으려고 경기장이나 코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저지르고도 넘어가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Exercise 1 도덕적 분노로 촉발되는 징벌

Moral outrage is the psychological tool that motivates people to punish wrongdoers, even at cost or risk to themselves.

It is a "commitment device," something that commits people to punishment, even though trying to punish someone can be dangerous.

When we witness unjust harm,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or obvious cheating, we have an embodied physical reaction.

We get angry, our blood pressure spikes, our heart beats faster; we thirst for retribution.

Outrage leads us to ignore the irrationality of risking our own safety to punish someone.

In any single situation, there is rarely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for meting out punishment, and often there is real risk, because the person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 could lash out at you or get revenge in the future.

But the powerful feeling of outrage leads us to momentarily forget this unfavorable evaluation and get involved in a situation we would be better off avoiding, and science reveals how this feeling and forgetting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a cooperative society.

도덕적 분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올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악행을 저지른 자를 징벌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도구이다.

그것은 '이행 장치' 즉 사람들이 누군가를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을지라도 징벌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가 개인 간의 폭력을 저지르건 명백한 사기를 저지르건 간에 우리가 부당한 피해를 목격할 때, 우리에게 구현되는 신체적 반응이 있다.

우리는 화가 나고, 혈압이 급상승하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데, 우리가 징벌을 갈망하는 것이다.

분노는 우리가 누군가를 징벌하고자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한다.

어떤 단일 상황에서도 징벌을 내리는 것에 관한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으며, 흔히 실제적 위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의를 실현하려는 대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장차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라는 강력한 느낌은 우리가 이 불리한 판단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고,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 관여하게 하며, 과학은 어떻게 이 느낌과 잊음이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밝힌다.

Exercise 2 천연 제품에 대한 인간의 선호

Why do humans have the counterproductive instinct to favor natural products in the absence of knowledge of their benefits or their potential for harm?

The answer likely lies in our genes.

Our species, through most of its evolutionary history, relied heavily upon experience to judge whether ingestion of something was beneficial (i.e., nutritional or medicinal) versus whether it was dangerous (i.e., poisonous).

We evolved the instinct to avoid plants that made us sick and favored those that made us well.

Treating unknowns with great caution provided a terrific survival advantage.

Today, we trust that products of nature are safe to consume.

But those pills coming off a pharmaceutical production line look nothing like what our instincts tell us is safe to eat.

The ingredients remind us of a high school chemistry lab.

Yet we are expected to consume them.

Thus, we treat them with caution just as our distant ancestors regarded a new plant.

When in need of a remedy, we are drawn to derivatives of our food, plant products, which we perceive to be safe, and not artificial products of science.

왜 인간은 천연 제품의 이점이나 해로울 가능성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도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비생산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은 아마도 우리의 유전자에 있을 것이다.

인류는 진화 역사의 대부분 내내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것이 유익한지(즉, 영양적 가치가 있거나 약효가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지(즉, 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경험에 크게 의존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식물을 피하는 본능을 진화시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식물을 선호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은 생존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다.

오늘날 우리는 천연 제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제약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그 알약은 우리의 본능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그 성분은 우리에게 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 조상들이 새로운 식물을 대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대한다.

치료약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음식의 파생물, 즉 식물성 제품에 끌리며, 과학의 인공적인 산물에는 끌리지 않는다.

Exercise 3 식이 보충제의 안전성 문제

Dietary supplements are not drugs.

A drug is intended to diagnose, cure, mitigate, treat, or prevent disease.

Before marketing, drugs must undergo extensive studies of effectiveness, safety, interactions with other substances, and dosing.

The FDA gives formal premarket approval to a drug and monitors its safety after the drug is on the market.

If a drug is subsequently shown to be dangerous, the FDA can act quickly to have it removed from the market.

None of this is true for dietary supplements.

The current law gives the FDA only limited authority over supplement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remove unsafe supplements from the marketplace.

The FDA does not evaluat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supplements before they hit the marketplace.

There are some legislators in Congress who want to improve the law by requiring supplement makers to put safer products on the shelves and label products more clearly.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consumers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dietary supplements that are safe and those that have potentially serious side effects or drug interactions.

식이 보충제는 의약품이 ‘아니다’.

의약품이란 질병을 진단하거나, 고치거나, 완화하거나,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의약품은 시판 전에 효과, 안전성,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복용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국은 의약품에 대해 공식적인 시판 전 승인을 부여하고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그 안전성을 감시한다. 만약 이후에 의약품이 위험한 것으로 밝혀지면, 식품의약품국은 그것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사항 중 어느 것도 식이 보충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은 식이 보충제에 대해 식품의약품국에 제한적인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위험한 식이 보충제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식품의약품국은 식이 보충제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그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식이 보충제 제조업체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매대에 올리고 제품에 더 명확하게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의원이 의회에 있다.

그 목적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이 보충제와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 작용이 있는 식이 보충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ercise 4 문학 읽기의 역동성

Literature is not a disposable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Literature (as opposed to everyday reading) invites us back again and again to re-experience what it offers and to reassess its meanings.

Literature continues to communicate meaning and significance over time, and, most remarkably, to shift its meaning based on our perspective.

We have all had the experience of taking up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after several years and finding in it details and significance we missed the first (or fifth) time through.

What has changed is not the work of literature exactly but our experiences that are now reflected in the text.

One's perception of Shakespeare's grand drama on aging under existential threat, King Lear, is a different experience read in one's twenties than it is in one's seventies.

This is true because reading literature, as opposed to everyday reading, requires full reader participation, activating not just our informational processing skills but our analysis, imagination, and emotions.

These change over time in every person, and those changes explain how works of literature are more dynamic than everyday reading.

문학은 정보 덩어리의 일회용 전달 매개체가 아니다. 문학은 (일상적인 읽기와는 달리) 그것이 제공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그 의미를 재평가하도록 우리를 다시 반복해서 불러들인다.

문학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의미와 의의를 전달하고, 가장 주목할 만하게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계속해서 그 의미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모두 고전 문학 작품을 여러 해가 지난 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처음 (혹은 다섯 번째) 다 읽고서도 놓쳤던 세부 사항과 의의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바뀐 것은 정확히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현재 그 텍스트에 반영되는 우리의 경험이다.

존재론적 위협 속에서 나이 들어 가는 것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 King Lear에 대한 한 사람의 인식은, 20대에 읽을 때와 70대에 읽을 때 서로 다른 경험이다.

이것이 사실인 이유는, 일상적인 읽기와는 달리, 문학 읽기는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뿐 아니라 분석, 상상, 감정도 활성화하면서, 독자의 전면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러한 변화는 문학 작품이 일상적인 읽기보다 어떻게 더 역동적인지를 설명해 준다.